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의 존제(尊制)를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몸처럼 여겨라.

## 11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진·화산폭발 8건

### 국내에서도 3건 발생, 대환란의 서곡인가?

이슬람 급진세력들의 테러로 지구촌이 시끄럽다. 파리에 이어 말리에서 테러가 벌어졌다. 전 세계적으로 IS(이슬람 국가) 섬멸을 위해 지상군을 파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테러 안심지역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전문가들은 테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테러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최근 우리는 또 하나의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지진과 화산 폭발이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11월 현재(20일) 전 세계적으로 8건이 일어났다(다음에서 검색). 지진 예의국가처럼 생각되는 우리나라도 10월 1일과 30일에 경주 울산 부근에서 지진이 무려 3건 발생했다. 우리나라도 요즘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지진에서 안심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학자들은 맨틀의 대류에 따라 생긴 에너지가 지각을 구성하는 12개의 암석판 사이에 충돌하면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전보다 더 빈번하게 지진과 화산폭발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맨틀의 대류가 더 요동을 친다는 것일까? 어쨌든 그 원인에 대한 해설은 과학자들의 설명에 맡기고 여기서는 종교적, 예언적 측면만 살펴보자.

#### 지진과 화산활동이 빈번하니 영적으로 깨어있다

지구 땅 속 깊은 곳에 불덩어리가 들어 있다. 그곳을 지구의 핵이라고 하는데 외핵과 내핵으로 나누고 있다. 지구 핵은 지표면으로부터 약 2900km부터 약 5100km의 외핵과 약1000km부터 약

날짜	장소	규모	인용매체
7일	칠레	6.8 강진	뉴스1 11.7
8일	베네수엘라	5.3 지진	뉴스1 11.8
13일	우리나라 경주	2.2 지진	MBN 11.13
13일	과테말라	푸 에고 화산폭발	서울시정일보 11.13
14일	일본 규슈 남부	7.0 지진	세계일보 11.14
17일	그리스	6.5 지진	연합뉴스 11.17
17일	터키	4.2	연합뉴스 11.17
19일	남태평양 솔로몬제도	7.0	세계일보 11.19

#### 11월 중 지진·화산폭발 현황

6400km의 내핵으로 나뉜다(위키백과). 외핵의 바깥은 약 3500°C, 내핵 중심은 약 7000°C로 추정하고 있다. 핵 바깥을 맨틀이라고 하고, 지구 껍데기를 지각이라고 한다. 맨틀의 온도는 약 1000도에서 3000도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 핵과 맨틀은 왜 뜨거울까? 열은 불에 의해 발생하는데 불이 계속 연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로 한다. 그 깊은 땅속에는 산소가 공급될 수 없을 텐데 계속 연소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대륙의 지각과 해양의 지각은 그 두께가 다르다. 전자는 20-60km이고 후자는 5km이다. 맨틀의 온도는 지각을 태울 수 있는 온도임에도 지각의 두께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 지구 핵 속의 불은 하나님의 신

구세주 조희성님은 지구 속의 불덩어리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신은 불(火)인데 태우는 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각 속에 맨틀이나 핵속의 뜨거운 물체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화산폭발이나 지진 등으로 분출된 용암은 지표면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면서 식는가라는 의문이 든다. 이에 대해서도 구세주께서는 지표면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신이 마귀의 신에게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에 태우는 불로 변화가 된다고 설명하신다.

왜냐하면 우주만물은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며, 지구도 하나님의 신이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구 핵이 하나님의 신(불)이며, 또한 태우지 않는 불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으로 분출되어 나오는 순간 마귀에게 사로잡히기 때문에 마귀의 불로 변하여 태우는 불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다.

#### 구세주 출현하면 마귀가 사람을 죽

한다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완전한 장래에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伸縮)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海底)였던 곳이 해변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며 있던 곳이 없어지고 하며 없던 곳이 생겨나기도 하여 나그네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

#### 이러고 재난을 많이 일으킨다

박태선 장로님은 앞으로 지구가 마치 팔죽 끓듯이 끓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다. 지구 여기저기에서 지진과 화산이 폭발하며 요동을 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다.

조희성 구세주님도 박태선 장로님과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 "앞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때는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또한 증산 선생도 "앞으로 개혁이 될 때에는 산이 뒤집어지고 땅이 짝 짝 벌어져서 폭폭 빠지고 무섭다. 산이 뒤집혀 깔리는 사람, 땅이 벌어져 들어가는 사람, 갈데없는 난리 속이니 어제 왔다가 오늘 다시 와 보면 산더미만 있지고 집이 없느니라(도전 7:23:1-4)"라고 비슷한 예언을 하셨다.

구세주가 출현할 때부터 말세(末世)이다. 말세라는 글자 그대로 인간 세상의 끝이 말세이므로 인간 세상을 끝내고 하늘나라를 이룩하는 구세주가 출현한 때부터 말세라고 말씀하셨다.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로 사람이 많이 죽는 때가 말세가 아니라는 말이다. 구세주께서 출현하게 되면 마귀는 자기 때가 다된 것을 알고 사람들을 붙잡고 물귀신 작전을 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기 시작한다.

말세를 당하여 하늘의 식구들은 마귀에게 틀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우는 사자처럼 태한 백성을 삼키려는 마귀의 계락을 간파하여야 한다.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는 조심성이 필요한 때이다.\*

김중천 기자

## 금주의 말씀 요점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70)

### "이 세상의 변화법칙과 하늘나라의 변화법칙은 다르다"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세계 예언가들 간에 혼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변화법칙(變化法則)과 하늘나라의 변화법칙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의 영이 다스리는 이 세상은 음(陰)과 양(陽)이 합쳐져 가운데서 만물의 변화법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변화법칙은 일원체제(一元體制)가 됨으로 영원무궁토록 변하여 변할 수가 없는 영생체로 변화

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영(靈)이요, 영이 신(神)입니다. 신 자체가 영인 것입니다. 또한 영이 마음이요, 마음이 피의 작용이므로 피가 곧 영인 것입니다. 그런데 피(血)로써 사람의 몸이 되고 살이 되므로 사람의 몸 자체가 신인 것입니다. 이것을 음과 양의 법칙 속에서 알 수가 없도록 여태껏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 은혜 간직하기

승리제단 교인들은 지금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갈 때와 지금처럼 육신을 입지 않은 채 구원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것에 굉장한 차이를 느끼고 있다. 그 중 뭐니 뭐니 해도 첫 번째는 은혜 받기가 무척 힘들어졌다는 것일 것이다.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실 때는 광명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은 한취 은혜, 생수 은혜, 그리고 이슬 은혜를 받기가 무척 어렵다는 것을 필자만 느끼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구세주께서 보광하시기 전에 직접 이러저러한 여러 부탁을 하여 그 부탁이 이루어졌던 체험을 가지고 있다. 정육을 이기기 어렵다고 하면 정육을 대신 이겨주시고, 아프다고 하면 은혜를 부여하여 나아주시고, 집도 팔아달라하면 팔아 주시는 등 각자의 체험이 있다. 그때 우리는 무조건 부탁만 하면 마치 코플 듯이 쉽게 들어주셨던 구세주의 능력을 몸소 느꼈다.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기도 어렵고, 소원을 이루기도 어려워졌다.

7년 옥고(獄苦)를 치르시고 나오신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옥고를 치르지 않으면 한 사람도 구원할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당신이 옥중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여 우리 죄를 탕당해 주어야만 구원의 길이 열린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의 진실한 뜻은 과연 무엇일까?

구세주께서 부여하시는 이슬 은혜는 당신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생명이 피이니 이슬 은혜는 당신의

피라는 말씀도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의 피로써 키움을 받은 당신의 친자식이라는 이야기다. 육신의 어머니는 10달간 배속에서 피로써 키워서 낳은 후에 길러주시지만 구세주께서는 육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을 불러다 수십년간 피(이슬성신)로써 키워주시는 것이니 참으로 감사해야 할 일이다. 이에 대해 격암유록 통공가에서는 너무나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구세주는 천하에서 제일가는 우리 얼마이신데 얼마가 부여하시는 은혜로 배를 채운다(天下第一 우리 俺 哺乳充腸 이 내몸이 俺 哺乳이 어 이살가).

구세주께서 왜 보광(普光)을 하셨는지 각자 나름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300의인을 기르기 위해서 보광했다고 할 수도 있고, 대장마귀들은 당신이 다 죽었으니 혼자마귀들을 죽이기 위해 보광했다고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구세주께서 영생을 얻는 세밀한 방법을 다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실천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실천하면 영생이요 못하면 지옥이다.

보광 11년이 지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당시 받았던 은혜(庇)를 얼마나 간직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지금은 은혜 받기가 어려운 때이니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나마 받은 은혜를 까먹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는 것이다. 7년 옥고도 부족하여 보광까지 하신 그 뜻을 생각한다면 절대로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될 것이다.\*

## 일본의 도승, 기다노 대승정의 예언



1975년 7월 22일 밤 일본 불교계의 도승(道僧) 기다노(北野) 대승정이 선 통사라는 절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였

다. 갑자기 한 밤중에 4-5인의 외계인들이 찾아와 기다노 승정의 잠을 깨운 후 그에게 인류의 운명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다(저자 주: 이 우주인들은 천상계의 신명들이다). 다음 인용문을 보자.

"우리 우주인이 살고 있는 행성은 친구가 살고 있는 지구 행성보다 문명이 월등히 발달하였습니다. 대단히 살기 좋은 낙원이요 큰 이상세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구 성인이 다 같이 그리워하고 선망하며 갈망하는 천당이라고 하는 한 행성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

한다고 조금도 실망하거나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지구도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과 동등하게 된다는 사실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불완전한 장래에 일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에는 큰 변동'이 있을 터인데 지각이 신축(伸縮)되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해저(海底)였던 곳이 해변 위로 돌출하기도 하고 드러나 있던 섬이 물속으로 침몰되어 없어지기도 하며 있던 곳이 없어지고 하며 없던 곳이 생겨나기도 하여 나그네의 세계지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이렇게 된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니고 일본의 경우는 약 20만 명 정도 살아남을 것이라고 했다. 그

러나 한국에 대해서는 특히 명심 사항이라고 하면서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해주었다.

"일본의 우방인 한국은 지구상의 전체 나라 중 종주국이 될 것이며 절대적인 핵심 국가가 될 것이고 그 곳에서 성현군자가 부지기수 출세하여 사해 만방을 이룰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영광스럽게 행운과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인 약 425만 명이 구원받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나운몽, <동방의 한나라>, 애항숙출판부, 588-591쪽) <개벽실제상황> 416쪽에서 재인용.\*

누구든지 내 몸처럼

## 승리제단에서는 諸宗教의 경전에 예언되어 있는

제종교

## 三神一體 一人出 된 眞人の 증표인 甘露가 항상 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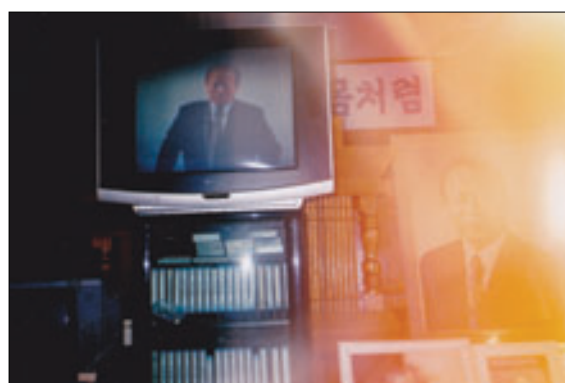
삼신일체 일인출

진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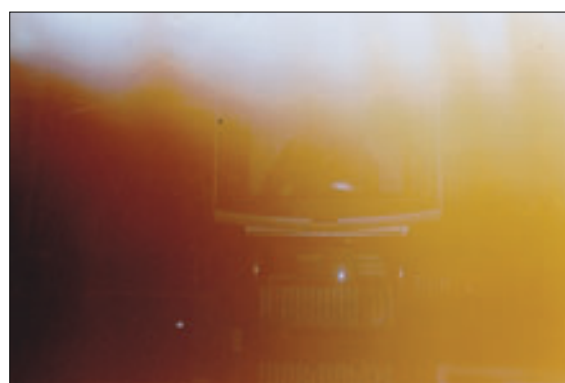
감로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정음제단에서 내린 이슬성신 / 전성남 승사 촬영

이슬성신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호세아 14:5)이라 빛의 형상(요한 1장)으로 나타난다.

구세주를 진심으로 따르는 승리제단 신도들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구세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슬성신이 카메라에 잡힌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이슬성신을 볼 수 있지만 죄인의 눈에는 안 보인다. 대신 죄가 없는 카메라 렌즈에는 찍히는 것이다.